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3:12~20

【인도자를 위한 예화】

한 소녀가 정신 병동 독방에 격리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8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알코올중독자로 간경화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호소에서 지내던 하나뿐인 동생마저 죽게 되자, 정신을 잃고 자해와 자살을 시도한 것입니다. 소녀의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서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혼자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소녀의 이런 딱한 사정을 듣게 된 한 은퇴 간호사가 소녀를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에게 건넨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나타난 소녀는 어느 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간호사의 말에 “나도 사랑해”라며 말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년여에 걸쳐 극진히 보살핀 결과 소녀의 정신질환은 완치되었고 ‘파킨스 시각 장애아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이 소녀를 돌본 간호사는 로라(Laura)였고 소녀의 이름은 앤 설리번(Ann Sullivan, 1866~1936)으로, 헬렌 켈러(Helen Keller, 1880~1968)의 스승입니다. 앤은 자신이 로라에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헬렌 켈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전하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고 끝까지 사랑한 경험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나누어 보세요.

【배경 이해하기】

13장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던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찬 이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고별 설교(14~16장)를 ‘다락방 강화’라고도 부릅니다. 독특한 것은 다른 공관복음서는 모두 이날 있었던 주요 사건으로 성만찬을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22:24~30에 따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큰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하루 남겨놓은 시점에도 여전히 자리다툼에만 연연했던 제자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은 실천적인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 아직도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13:1b)에도 잘 나타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최후의 만찬 도중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15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한 것같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행하게 하려 하시려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 이후 자신을 그들의 선생 또는 주라고 부르는 호칭이 옳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13절). 여기서 선생과 주의 원어적 의미는 ‘그 선생’, ‘그 주님’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존경을 넘어, 예수님을 유일한 선생이요 유일한 주님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에게 본이 되어 실제 삶에서 그들이 실천적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15절). 여기서 ‘본’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눈 아래 놓아 보여 주는 것’

이란 뜻으로 제자들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대로 따르고 실천해야 할 모범적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몸소 실천하여 제자들에게 보여 주심으로써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I

예수님이 보여 주신 사랑을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본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희생적 사랑을 보여 주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고전 11:1)라고 강권하여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헌신하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음을 선포하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방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관찰과 묵상 II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신다고 하시면서, 구약성경의 어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나요?(18절)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시 41:9)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41편의 말씀은 다윗이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당하는 내용으로,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삼하 15:12).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라는 표현은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만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라는 표현은 당시 배신 행위를 나타내는 관용구로 깊은 신뢰감이 있던 절친한 사람이 배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심복이었던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이 당할 배신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예언이 제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알려 주십니다. 장차 배신자가 가룟 유다임이 밝혀졌을 때, 예수님이 배신자를 알고 있음에도 당한 것임을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굳게 믿게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II

깊이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지금 그에 대한 마음은 어떠한지 나누어 보세요.

예수님은 고난으로 점철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너무나 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팔아넘긴 것은 가룟 유다였지만(눅 22:3~6), 사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열두 제자 모두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주지해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만이 남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고(19:38~42), 정작 열한 제자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21:2~3).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눈 최후의 만찬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친히 사랑의 본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참된 겸손과 사랑의 모습입니다.